

스키마에 의한 현대주택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raditionality in the Contemporary House base on Schema

이완건* / Lee, Wan-Geon
정례화** / Jung, Rye-Hwa

Abstract

An architecture is a result from representation of design knowledge by architect's creative thinking, and operated only in his internal organization system. Design knowledge based upon the experience that they have achieved in the past as well as the informations they have accumulated over the time. In this point of view, the Schema that formed by problems settlement and process repetitions for the best conclusion, not only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designer's thinking system about a specific problem but also appeared by distinctive features. This research looks to achieve a new design method by finding out how architects express traditionality in the contemporary house through schema.

This research analyze contemporary house built in seoul of 1990's.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 Schema is a 'frame' that already exist in the architect's thinking, will make a good guide about express the traditionality. Second, We found out several distinctive characters in the form and the space. The form is divided in five types. It is an condensed form of roof image, the metamorphosis of form grammar, the change of part details, the representation of design principle and the directly expression. Lastly, In the space, it is the borrow of the connection method of inside and external space, the three parts composition of the space, the adaptation of 'Madang' and the independent composition of the space due to 'Chae'.

키워드 : 스키마, 현대주택, 전통성, 디자인지식

Keywords : Schema, Contemporary House, Traditionality, Design knowledg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 건축가들은 디자인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디자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그동안 습득한 디자인지식들에 의해 결정되며, 건축가의 의도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건축가의 내부에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스키마로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전통성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성에 관련한 문제의식은 여러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부각되어온 과제로 오늘날 건축가들도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스키마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단시간에 지식을 공유하면서 단일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핸드폰, 자동차, 건축 등 지역과 나라의 특성은 무시된 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디자인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 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축가들이 전통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스키마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통성에 대한 한국 현대건축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작품성이 인정되어 국내 잡지에서 소개되었고 1990년대 서울 지역에 완공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전통성의 표현 방법을 스키마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은 디자인과정 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주택을 대상으로 20세기 말 한국 현대 건축가들의 디자인경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함이다.

* 정회원, (주)유일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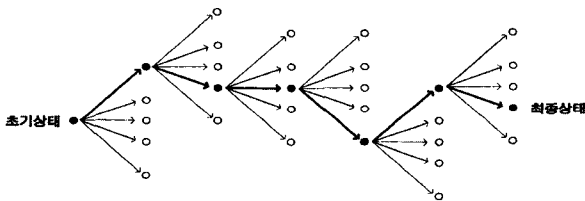
** 정회원, 에이앤지 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본 연구는 현대주택을 대상으로 전통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디자인 연산과 디자인지식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스키마를 통한 디자인 표현을, 4장에서는 서울시의 현대주택을 대상으로 스키마 차원에서 전통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디자인 연산과 디자인지식 고찰

2.1. 디자인 연산과 체계

디자인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이든지 실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이다.¹⁾ 이러한 디자인이라는 창조적 작업은 여러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imon은 디자인이란 인공물(artifacts)에 관련된 지적 활동으로서, 문제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디자인 활동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계획 그리고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²⁾



<그림 1> 디자인체계를 위한 상태조작수형도의 일부분
출처 : William J. Mitchell, 김경준, 남순우 공역, The Logic of Architecture(건축의 형태언어), 국제, 1993,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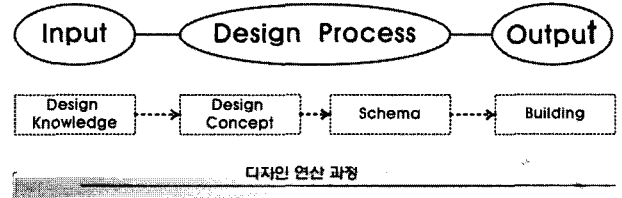
<그림 1>과 같이 건축가는 디자인의 최종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습득한 디자인지식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모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 건축가의 축적된 디자인지식³⁾이 관여하게 되고 특히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은 자신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은 <그림 2>와 같이 디자인 연산과정을 거치면서 건축가의 독특한 디자인 특성으로 나

1)http://www.encyber.com

2)Simon, Style in Design, in C. M. Eastman (ed.), Spatial Synthesis in Computer-Aided Building Design, Applied Science Publishers, London, 1975, pp.287~309

3)이한석, 건축설계 초기단계에서 건축가의 설계정보처리, 대한건축학회지, 40권 6호, 1996, p.11. - 일반적으로 데이터, 정보, 지식 사이에는 구별이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사실이나 사건을 비구조적이고 랜덤하게 모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디자이너에 의미 있는 것으로 구조화한 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타난다. 건축가는 전통에 대한 많은 디자인지식들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다가 디자인개념으로 건축물에 반영된다. 이때 유사한 디자인개념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스키마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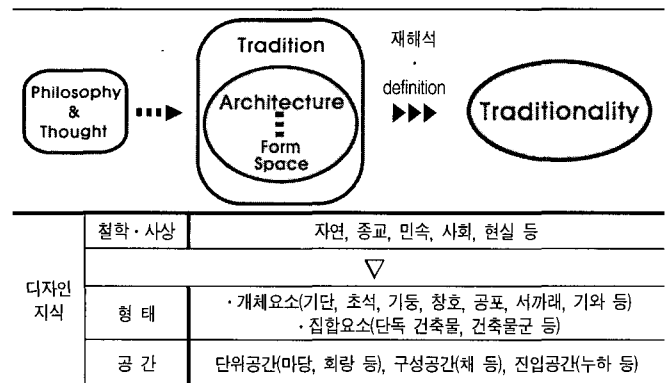


<그림 2> 디자인 연산(Design Process) 과정

2.2. 디자인지식과 전통성

어떤 민족이든 오랜 시간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혼적으로서 유·무형의 것들을 남겨놓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전통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연속성과 영구성의 의미가 들어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계승 발전시키게 된다. 전통이란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이것은 <표 1>과 같이 전통건축이 지닌 다양한 디자인 정보들 즉, 사상과 철학, 형태와 공간과 관련된 구성요소 및 기법 등 모든 인자들이 디자인지식(Design knowledge)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이 현대건축에 디자인어휘로 사용될 때 우리는 전통성을 느끼게 된다.

<표 1> 디자인지식과 전통성의 표현



디자인 지식	철학·사상	자연, 종교, 민속, 사회, 현실 등
	형태	·개체요소(기단, 초석, 기둥, 창호, 공포, 서까래, 기와 등) ·집합요소(단독 건축물, 건축물군 등)
	공간	단위공간(마당, 회랑 등), 구성공간(채 등), 진입공간(누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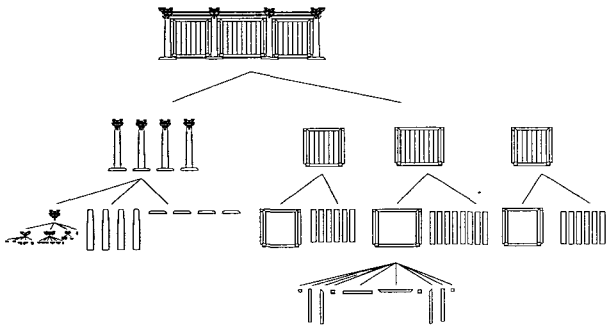
인간 삶의 기본인 주거는 시간의 궤적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생활방식이 변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형태 등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적인 것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존재임이 분명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되는 특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건축은 현대건축에서 이용 가능한 건축어

휘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에 과거의 유산들이 쉽게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의 현대도시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특색 없는 건축들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가 지닌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들을 현대 건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도시는 전통이 살아 있는 역사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2.3.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과 표현 방법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이 전통성을 표현하기 위한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으로는 형태적 측면은 크게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의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각 부위의 구성요소 개체 또는 집합적 형태는 직설적 내지는 추상적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3>과 같이 벽체부는 기둥과 벽체로 나뉘고, 기둥은 다시 초석, 기둥 몸체, 공포로 구성된다. 벽체는 상하 인방과 벽을 구성하는 여타 부재로 되어 있다. 공간적 측면은 <표 1>과 같이 크게 단위공간(마당, 회랑 등), 구성공간(건물과 건물 사이의 관계적 공간), 진입공간(누하진입 등) 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고 이들은 부분 또는 전체로서 현대건축에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지식들이다. 이러한 디자인 어휘들의 표현 정도에 따라 우리는 현대건축에서 전통성을 느끼게 된다.



<그림 3> 전통건축 벽체부분의 디자인지식 분석(기둥+벽체)

<표 2> 디자인지식의 표현 방식⁴⁾

유형	내용	
관찰자의 인지 정도	1차적 표현	디자인개념으로서 디자인지식이 확실하게 인지되는 경우
	2차적 표현	디자인개념으로서 디자인지식이 확실하게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
정신분석학적 측면	의식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전통성'을 표현한 경우
	무의식	건축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디자인 결과물에서 '전통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들은 <표 2>의 관찰자의 인지정도

4)이완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한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호, 2003과 이완건 외, 디자인 개념을 통한 전통건축 디자인 지식의 현대적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7호, 2004 참조

또는 정신분석학적 측면 등과 같은 표현방법들을 통해 건축에 적용되어지는데 이러한 연산 과정에서 건축가들은 자신이 습득한 디자인지식들을 스키마를 통해 독특하게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이 어떻게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스키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스키마에 의한 디자인 표현

3.1. 스키마

스키마(Schema)라는 용어는 Bartlett(1932)의 심리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식(knowledge)에 관한 이론이다. 지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지식의 사용을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이론이다.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단위로 포장되며 이 단위가 스키마타(schemata)이다. 스키마는 기억에 보관되는 일반적인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이며 여기에 대상, 상황, 사건, 사건의 순서, 행동, 행동의 순서들의 모든 개념들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을 재현하는 스키마타가 있다. 스키마타는 지각정보의 해석, 기억으로부터 정보 검색, 실행조직, 목표와 부목표의 결정, 자원 할당의 과정과 시스템에서 처리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⁵⁾ 따라서 디자이너의 오랜 경험에서 쌓이는 하나의 틀로서 누구나 다르게 나타난다.

스키마타의 주요 특징으로 Rumelhart와 Ortony(1977)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변수(variables)를 지니고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추상적 단계에서 지식(knowledge)을 상징한다. 또한 정의(definitions) 보다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다.⁶⁾ 여기에 일반적인 특징 두 가지를 추가 할 수 있다. 스키마타는 활동적 과정(active processes)이며 데이터가 최적의 상태로 처리되도록 평가하는 인식 장치들(recognition devices)이다. 따라서 스키마타의 풍부한 관계적 어휘들을 부호화함으로써 상황을 즉시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스키마란 디자이너의 사고와 인식의 체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적 디자이너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지각 속에 생성되어 체계화된 하나의 '틀'로서 범주화의 의미로도 정의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경우 이전에 해결했던 유사한 문제를 기억해 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새

5)이완건 외, 앞의 논문, 2004,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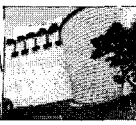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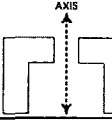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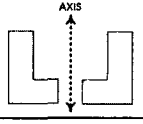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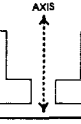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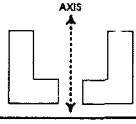
6)스키마타는 하위 스키마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단계의 지식을 대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모든 단계, 추상적인 것의 모든 단계를 대표하는 스키마타를 갖고 있다. 우리의 스키마타는 지식이며 우리의 모든 포괄적인 지식은 스키마타에 끼워 넣어져 있다.

로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추적 사고의 핵심은 유추적 전이(analogical transfer)로 설명되며 이것은 기억으로부터 과거에 해결했던 비슷한 문제를 찾아 생각해 낸 후 문제 해결의 핵심 정보를 새로운 문제로 옮겨오는 인지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⁷⁾

3.2. 스키마로서 디자인지식

스키마는 디자인 연산 과정에서 건축적 어휘를 형성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의 반복과 오류의 수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디자이너의 사고체계 안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틀이라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스키마와 건축적 특징은 과정과 오류의 수정을 반복하는 동안 형성된 디자이너 고유의 디자인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최종 결과물에 나타나는 건축적 조형의 공통 특징으로 한정된다.⁸⁾ 본 연구에서는 건축가의 내재적 디자인 연산 과정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에 표출된 디자인적 특징들을 통하여 동시대 작가의 스키마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마리오 보타의 작품에서 나타난 스키마적 특성

건물명	The round house in Stabio	Single-family house in Breganzona	교보빌딩	Leeum 삼성미술관
진경 사진 및 내용	 원형 평면, 대칭적 'A'형 입면	 사각형 평면, 대칭적 'B'형 입면	 사각형 평면, 대칭적 'B'형 입면	 중세 성벽 여장의 부분 디테일, 'B'형 부분 입면
스케치 및 도면				
조형 스키마 분석	 A - Type	 B - Type	 B - Type	 B - Type

현대 건축가 가운데 마리오 보타(Mario Botta, 1943~)는 역사성과 전통의 문제에 관련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심도 있게 반영하고 있는 건축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스위스 티치노(Ticino)에서 태어나 그곳의 문화적 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건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역사와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며 건축이란 무(無)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함께 다른 건축가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적 유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육면체와 원통형이라는 기하학 형태를 사용하여 중심과 정면의 중앙부를 강조하고 있다. <표 3>을 보면 대칭적 입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2가지 타입을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타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디자인지식들을 스케치 과정과 디자인 개념들을 통해 정리해 가고 있는데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칭적 입면 구성이라는 디자인원리를 사용하고 조형적으로는 크게 2가지 타입의 스키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스키마에 의한 현대주택의 전통성 분석

4.1. 현대주택 형태에 나타난 전통성 분석

본 연구는 건축계획 상 커다란 제약 없이 건축가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표 4>에서와 같이 63개의 단독주택⁹⁾을 대상으로 1990년대 한국 현대 건축가들이 어떻게 전통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스키마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지붕 이미지의 형상화

지붕은 외부로부터 눈과 비 등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한옥의 경우 처마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크고 육중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지붕은 외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격에 따라 형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동양권의 한·중·일(韓·中·日)에서도 각 나라 별로 형태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지붕의 형태적 의미는 건물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전통건축은 재료에 따라 기와지붕, 초가지붕, 너와지붕 등으로 구분되며, 형태적으로 기와 잇기의 물매에 의한 경사지붕과 곡선형 이미지의 초가지붕으로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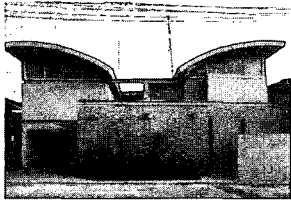
이 유형은 현대주택의 지붕에 이러한 디자인 특성들을 전체 또는 부분에 반영함으로써 전통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면 돔형, 볼트형, 1/4 원형과 기타 곡선형 지붕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전통 초가에서 느끼는 둥근 형태의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또한 반원형의 철골 프레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지붕의 일부에 곡선형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보이는 경사지붕 형태는 전통 기와지붕(맞배, 우진각, 팔작, 모임지붕 등)의 느낌을 준다.

<그림 4>의 ‘몽학재(예공)’ 경우는 초가지붕의 이미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곡선형 지붕을 반대 방향으로 배치 시킴으로써 정형의 전체 매스에서 오는 정적인 느낌에 긴장감

9)조병수의 성북동 스튜디오주택(36)은 리노베이션 사례이다.

7)송석현, 건축 디자인 Schema의 형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2, p.15

8)송석현, 앞의 논문, 2002, p.56



<그림 4> 동학재
- 지붕곡선의 반역적 표현

을 유발 시키는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주택의 지붕에서 보이는 곡선형과 경사 지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익숙해 있던 한국 전통 건축의 형태적 이미지가 현대건축가의 디자인 과정에서 표출된 스키마적 특징이라 하겠다.

인에 반영한 경우이다. 크게 '평면형태의 매스화'와 '곡선형의 형태구성'로 구분되어진다.

1) 평면형태의 매스화

전통주거는 규모에 따라 다양한 평면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는 결정되어진다. 현대주택도 건축가의 계획의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통주거의 평면형식에 따른 건축물 외관과 유사한 매스계획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표 5>를 보면, 'L'형과 'C'형의 형태구성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홍은동 J'씨 주택(예공)의 경우는 매스의 분절에 의해 중앙부를 비워두면서 전면부의 양쪽으로 박공면의 형태적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2) 곡선형의 형태구성

전통건축의 조형 형식 가운데 지붕, 기둥 등에서 발견되는 '원형(圓形)'의 이미지를 현대주택의 내·외부에 형상화하고 있는 유형이다. 주택의 평면 및 매스 계획에 부분적으로 곡선을 사용함으로써 전통건축에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표 5>의 '자곡동주택(도각)'은 전통 초기의 곡선적 이미지가 형태로 변용된 사례이다.

(3) 부분 디테일의 변용

전통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목조건축의 부분 디테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우로 '처마형식의 변용'과 '대문과 장식의 변용'으로 분류된다.

1) 처마형식의 변용

전통건축의 '처마' 부분을 재해석한 경우로 많이 사용된 유형이다. 처마는 지붕 가운데 건물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빗물이나 햇빛을 받게 되는 부분이며, 연목으로만 구성된 홑처마와 부연과 연목으로 구성된 겹처마로 구분된다. 전통건축에서 이러한 처마내밀기의 정도는 일정한 비례를 갖고 있는데 기둥과 처마 끝이 평균해서 30°각을 이룬다.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곡선을 만드는 '안허리곡'과 '앙곡'의 기법도 이러한 처마를 통해 나타난다. 대상 주택에서는 처마를 많이 내밀어 입면에 강한 음영을 만들고 있거나 전통건축의 처마부분을 단순화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림 5>의 '평창동 주택(광장)'은 전통건축의 팔작 지붕의 모서리 부분 즉, 추녀와 사래가 놓이며 이를 활주로 받치는 지붕부분을 단순화하여 디자인하고 있다. 전통건축의 날렵한 처마곡선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그림 5> 평창동 주택 - 추녀부분 처마를 단순화

전통건축의 지붕이 전체 건물의 인상을 결정하듯 현대주택에서도 이러한 '처마형식의 변용'의 방식을 건축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대문과 장식의 변용

<표 5>에서 '후암동 김씨택(삼성물산)'의 경우는 전통건축

<표 4> 1990년대 완공된 서울시 소재 연구대상 단독주택 현황

번호	건물명	위치	사무소명/건축가	번호	건물명	위치	사무소명/건축가
1	논현동주택	논현동	한	33	서초동주택	서초동	최두남
2	논현동주택	논현동	내외	34	비선재	성북동	김효만
3	삼성동주택	삼성동	내외	35	삼선동O씨택	삼선동	(주)공간
4	수서동주택	수서동	(주)예토	36	성북동S씨주택	성북동	조병수
5	신사동주택	신사동	(주)인우	37	성북동K씨주택	성북동	(주)서인
6	신사동 P씨주택	신사동	한·공간환경	38	성북동K씨주택	성북동	이로재
7	역삼동 G씨주택	역삼동	임채진	39	성북동K씨택	성북동	오기수
8	역삼동 H씨주택	역삼동	(주)피아	40	성북동과안정	성북동	맥
9	역삼동 Y씨주택	역삼동	내외	41	정릉동S씨주택	정릉동	(주)공간
10	역삼동주택	역삼동	이공	42	K씨주택	동빙고동	서혜림
11	역삼동주택	역삼동	김준상	43	후암동김씨택	후암동	삼성물산
12	자곡동주택	자곡동	도각	44	불광동J씨택	불광동	거연건축
13	학동수출당	논현동	이로재	45	구기동주택	구기동	장원
14	해인재	논현동	아람광장	46	동학재	평창동	예공
15	수유리주택	수유동	이도건축	47	명륜동주택	명륜동	이강현
16	신림동주택	신림동	아람광장	48	부암동주택	부암동	이공
17	홍능A씨택	홍능동	유걸	49	실내장식가의 주택	명륜동	장원
18	사당동주택	사당동	이도건축	50	열린 집 하나	평창동	정진국
19	아크힐하우스	상도동	공간사랑	51	원서동주택	원서동	시·공
20	관수장	상수동	오기수	52	자명당	신영동	단우모람
21	성산동주택	성산동	아람광장	53	평창동 G씨주택	평창동	조병수
22	L 주택	합정동	다건축	54	평창동 김씨주택	평창동	삼에
23	연남동주택	연남동	건축문화	55	평창동L씨택	평창동	유걸
24	북아현동주택	북아현동	한	56	평창동L씨주택	평창동	허범팔
25	연희동주택	연희동	우림건축	57	평창동주택	평창동	광장삼연
26	연희동K씨택	연희동	이상	58	평창동주택	평창동	광장
27	홍은동J씨주택	홍은동	예공	59	평창동주택	평창동	한인
28	반포동I씨주택	서초동	(주)큐비	60	평창동주택	평창동	홍간
29	서초동H씨주택	서초동	한	61	평창동주택	평창동	(주)매사
30	서초동주택	서초동	심영삼	62	평창동P씨택	평창동	(주)시원
31	서초동주택	서초동	오기수	63	신당동주택	신당동	일산
32	서초동주택	서초동	(주)두우				

(2) 조형 형식의 변용

전통건축이 지닌 조형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

의 '대문' 형식을 프레임을 가진 가벽을 출입구 앞에 설치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고, '서초동 주택(심영섭)'은 외벽을 치장벽돌로 누어쌓기와 세위쌓기를 혼용하면서 흰색시멘트 줄눈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 담장 즉, 사고석 담장, 꽃담 등에서 보이는 흰색의 줄눈을 연상하게 한다. 사고석 담장의 경우 수평줄눈은 통줄눈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엇갈림으로 하여 그 사이를 보통 2.5cm 정도로 면회(面灰)¹⁰⁾ 바르기를 한다. 이러한 디테일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 디자인 원리의 재현

<표 5> 스키마에 의한 현대주택 형태(形態)의 전통성 분석

유형 및 대표 사례		내용			비고 (사례 번호)	
유형	대표 사례(번호)	전통건축 디자인지식	표현 방식과 대상 사례(번호)	스키마 분석		
지붕 이미지의 형상화	 자곡동주택(12)	· 초가지붕	전체	· 돔형의 천장(1), 1/4 원형지붕(44) · 볼트형 지붕(7,12,22,23,32,33,34) · 기타 곡선형 지붕(46,52,57,58)	· 초가지붕의 친숙한 이미지를 둥근 형태의 현대적 지붕으로 형상화	· 지붕 곡선의 반어적 표현(29,46)
			부분	· 반원형의 철골 프레임(5) · 일부 반원형의 형태(6,29,35)		
	 자곡동주택(12)	· 기와지붕	전체	· 경사지붕 형태 (2,3,6,8,9,10,14,16,17,19,21,24,25,27,28,30,31,36,38,39,40,41,45,51,55,59,61,62,63)	· 전통 기와지붕(맞배, 우진각, 팔작 등)의 경사지붕 이미지의 형상화	· 모임지붕(14,21) · 성북동스튜디오 주택(36)-리노베이션 · 만사도 지붕(56)
			부분	· 부분 경사지붕(4,26,49), 부분 모임지붕(44)		
조형식의 변용	평면 형태의 매스화	 홍은동J씨주택(27)	영천 만취당 - 안채	전체	· 전통건축의 평면구성 형식에 따른 매스계획	
	곡선형의 형태 구성	 자곡동주택(12)	가람집-곡선형 지붕	부분		
부 대 일 변 용	처마 형식	 논현동주택(2)	봉정사 극락전	· 처마 돌출 (2,8,10,12,24,25,27,38,39,41,46,52,53,56,57,61,62,63) · 처마의 형태 이미지를 단순화(58)-뱃머리 연상	· 부연과 연목으로 구성된 겹처마와 연목으로만 된 홑처마의 형태를 변용 · 추녀와 사래를 받는 활주 부분의 처마를 연상	
	대문 또는 장식	 후암동 김씨대문 (43)	퇴계 종택 - 대문	· 프레임을 가진 출입문 설치(43) · 치장벽돌 누어쌓기와 세위쌓기를 혼용하며 흰색시멘트 줄눈으로 마감(30)	· 전통건축의 '대문'을 현대적으로 해석 · 쌓기방법과 줄눈 장식의 현대적 해석	· 지붕 형태→평면 및 매스로 부분 변용
디자인 원리의 재현	대칭적 입면 구성	 논현동주택(2)	경희루-대칭	· 입면을 대칭적으로 구성(2,6,9) · 부분 대칭-대칭적 형상 추구(8,14)	· 형태축으로 대칭원리 사용	· 전통건축의 디자인 원리를 현대건축에 재현
	입면의 수직적 3단 구성	 역삼동 H씨주택(8)	天 人 地	· 입면을 수직으로 3등분 구성 (지붕부+벽체부+저층부)(8)	천원지방론(天圓地方論) 등에 의한 전통건축의 3분적(지붕-天, 벽-人, 기단-地) 수직체계를 형상화	
직설적 표현	 학동 수출담(13)-담장	 창경궁-사고석 담장	· 전통 사고석 담장을 사용(13) · 전통장호 형식→대문(13) · 전통건축의 지붕형태(39,48)	· 전통건축의 디자인 요소를 직설적으로 표현	· '전통성' 표현을 위한 가장 단순한 방식 · 인지성 높음	

10)석회석 또는 소석회에 모래를 섞어 해초풀로 반죽한 것을 쓴다.

2) 입면의 수직적 3단 구성

전통건축은 천원지방론(天圓地方論) 등 다양한 사상을 디자인에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 의해 지면과 접촉하는 기단부를 아래로 하여 그 위에 벽체부 그리고 지붕부가 놓이는 수직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원리가 현대주택에 적용된 사례로는 <표 5>의 '역삼동 H씨 주택(원대연+(주)피아)'이 있다. 심한 경사를 갖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경사에 맞춰 담을 쌓고 기단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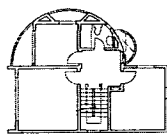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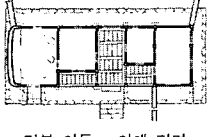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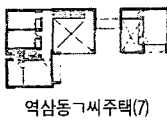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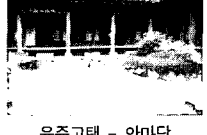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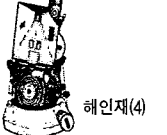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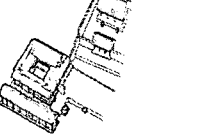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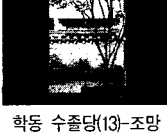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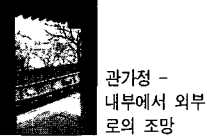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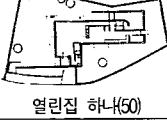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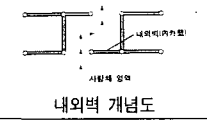
(5) 직설적 표현

전통건축이 지닌 디자인 요소를 현대재료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방식이다. 쉽게 '전통성'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표 5>의 사례에서는 지붕형태, 전통창호, 담장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2. 스키마를 통한 공간의 정통성 분석

대상 사례들이 주택이기 때문에 '전통주거'에서 사용된 공간 수법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을 보면 전통건축의 공간 구성수법이 직접적으로 차용되거나 구성원리가 현대적으로 변용되어 사용된 사례로 대별되어진다.

<표 6> 스키마에 의한 현대주택 공간(空間)의 전통성 분석

유형 및 대표 사례		내용			비고 (사례 번호)
유형	대표 사례(번호)	전통건축 디자인지식	표현 방식과 대상 사례(번호)	스키마 분석	
공간의 3분할 구성	 논현동주택(1)	 경북 안동 - 안채 평면 (방+마루+방)	· 홀과 계단실을 공간축으로 3분할적 공간구성 (1,5,6,8,17,19,20,24,28,30,31,35,41,46,59,60,63)	· 마루를 중심으로 한 「안방+대청+건너방」의 전통 주거평면 구성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마당의 공간 요소 도입	 역삼동 7씨주택(7)	 윤중고택 - 안마당	외부 · 매스의 분절에 의한 중정 공간의 형성(7,10,11,13,38,46,51,52,54,55) 내부 · 내부공간 void를 통한 추상화(22,47) · 천장을 통한 빛마당 형성(6,27)	· 전통건축은 채와 채 사이에 '마당'이 형성되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채에 의한 공간의 독립적 구성	 해인재(4)	 서백당	· 살림채인 본채와 바깥채로 구성(14)	· 전통건축은 안채, 사랑채 등 독립된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내·외부 공간의 연계 수법 차용	 학동 수출당(13)-조망	 관가정 - 내부에서 외부로의 조망	· 전통창호를 통한 외부공간의 내부공간화(13) · 빗마루 또는 쪽마루에 의한 외부공간과의 연계(10,30,31,34,37,38,42,53) · 테라스를 마루의 연장으로 표현(54) · 길, 흠마당, 마루마당, 뒷마당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이어지는 진입방식(13)	· 전통건축 내·외부공간의 구성 및 연계 수법을 직설적으로 사용	
	 열린집 하나(50)	 내외벽 개념도	· 대문에서 한 번 꺾이는 의도적인 진입방법(50)	· 시각적 차단을 목적으로 한 수법을 차용	

(1) 공간의 3분할 구성

전통주거는 「부엌+안방+마루+건너방」을 기본으로 다양한 평면구성을 이루게 된다. 특히 '마루'는 매개공간으로 내부공간 이면서 외부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간을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현대주택에서 계단 또는 홀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계단과 홀이 주택의 공간적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현대주택은 동적공간(거실, 식당, 부엌 등)과 정적공간(침실, 서재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수직적(층별) 또는 수평적으로 공간 분할되는데 이때 계단과 홀이 공간 축을 이루게 된다.

(2) 마당의 공간요소 도입

전통주거의 공간구성 요소인 '마당'은 채와 채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으로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현대주택의 디자인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전통건축에서 마당은 채광, 환기의 위생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의 중요 행사를 담당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장소이다. <표 6>의 '역삼동 7씨주택(임채진)'에서는 이것이 외부 매스의 분절에 의한 중정공간으로 표현되었고, 'L주택(다건축)'에서는 내부에 void를 둠으로서 추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유형에서 '마당'

이라는 요소는 주택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체에 의한 공간의 독립적 구성

전통주거는 사랑채와 안채를 기본으로 독립된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건축의 '체'에 의한 독립적 구성 방식을 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표 6>의 '해인재(아람광장)'는 살림채의 본채와 바깥채가 중앙의 중정공간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주택이 아니라 도심지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지면적의 한계 상 '체'라는 전통건축의 구성방법을 따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4) 내·외부 공간의 연계수법 차용

전통건축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연결 수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현대주택에 접목된 경우이다. <표 6>을 보면, 시각적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건축의 내외벽 개념(열린집 하나), 내·외부 공간의 진입방식(학동 수출당), 텃마루 또는 쪽마루에 의한 외부공간과의 연계방식(역삼동주택 등), 전통창호를 통한 외부공간의 내부공간화(학동 수출당) 등의 사례들이 발견된다.

<표 5>와 <표 6>을 살펴보면, 현대주택이라는 용도상의 한계 때문인지 다양한 형식의 전통성 표현 방법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은 디자인과정에서 아직 공간보다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전통성'과 관련된 스키마적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전통건축 디자인지식의 현대적 표현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대주택은 과거와는 다른 생활양식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전통건축의 형식들은 우리의 뇌리에 잠재해 있고 이런 연유로 해서 친숙함 또는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도 이러한 배경에서 의도하였던 그렇지 않았던 디자인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스키마를 통하여 1990년대 주택 작품들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어떻게 현대 건축가들이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스키마는 건축가의 사고체계 속에 하나의 '틀'로서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된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들을 스키마 형태로 자신의 건축에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오늘날 건립되는 단독주택들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통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둘째, 1990년대 서울시에 건립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형태적으로는 크게 '지붕 이미지의 형상화', '조형형식의 변용', '부분 디테일의 변용', '디자인원리의 재현'과 '직설적 표현'의 유형이 조형적 스키마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들이 직설적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단순화 또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변용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전통건축 디자인지식의 직설적 표현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이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어휘로 재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대 건축가들은 디자인연산 과정에서 다른 부분 보다는 형태적 측면에서 전통성에 관한 스키마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공간에서 스키마적 특징은 한정되어 있었다. '내·외부 공간의 연계수법 차용'과 같이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기법이 직설적으로 도입된 경우와 '공간의 3분할 구성', '마당의 공간요소 도입'과 '체에 의한 공간의 독립적 구성'과 같이 현대적으로 변용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전통건축에는 이외에도 많은 공간구성 기법의 디자인지식들이 존재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건축가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라는 규모 및 용도상의 한계 때문인지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들이 스키마를 통하여 많이 분석되지 않았다. 전 세계가 짧은 시간에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요즘, 우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 즉, 전통적 색깔이 묻어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라는 지역에서는 한국인의 체형과 생활패턴에 맞는 전통적 공간이 서양식의 주택공간보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현대 건축가들은 전통건축의 디자인지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혀 자신의 디자인어휘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호진·김득선, 건축조형사고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7
2. 이호진, 건축의장론, 산업도서출판공사, 2001
3. 전영일·이한석, 건축디자인 이론, 기문당, 1997
4. Bryan Lawson, 윤장섭 역, How Designers Think(디자이너의 사고방식), 기문당, 1996
5. Edward T. White, Concept Source Book(건축디자인 개념 원전), 대우출판사, 1993
6. Simon, Style in Design, in C. M. Eastman (ed.), Spatial Synthesis in Computer-Aided Building Design, Applied Science Publishers, London, 1975
7. William J. Mitchell, 김경준·남순우 공역, The Logic of Architecture(건축의 형태언어), 도서출판 국제, 1993
8. 송석현, 건축 디자인 Schema의 형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2
9. 이완건 외, 디자인 개념을 통한 전통건축 디자인 지식의 현대적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7호, 2004
10. 이완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한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호, 2003

<접수: 2006. 8. 31>